

종합·해설

대립각 커지는 우리당 親盧-非盧

친노 “정·김 당 떠나라” 비노 “오만방자” 이달내 결별 가능성... 당 분열 위기 고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당 해체 및 탈당 움직임에 정면 비판하고 이에 반발해 우리당의 양 대계파 수장인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뒤 당내 친노(親盧), 비노(非盧) 세력간의 대립각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친노 세력은 정, 김 전 의장을 겨냥해 “무자정 당을 깨자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떠날 테면 떠나라”고 비노 세력의 쌍두마차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비노세력은 “친노파가 대통합신당을 만들자는 2.14 전당대회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친노파인 김태연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합의 현실성 있는 경로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무작정 해산하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껏 정 전 의장이 ‘내탓이요’라고 하는 것을 한번도 듣지 못했다. 지도자란 장졸에게 앞길을 제시하고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친노 세력의 과상 공세에 대해 정 전 의장은 5일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지선 스님과 만나 “맹자에 ‘천시지리인화(天時地理人和)’란 말이 있다. 천시와 지리는 지금 개혁세력에게 있다. 인화만 이루면 뜻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측근이 전했다.

김 전 의장측도 “친노파의 주장은 전대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라며 “전대 합의사항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통합신당을 만들자는 것으로, 우리당 해체는 당연한 것 아니냐. 당 해체는 갑자기 튀어나온 주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리당을 탈당, 민생정치모임을 이끌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이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단식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정·김대가 개혁의 후퇴, 정체성 혼란의 대부분을 주도했다”며 노 대통령을 정조준한 뒤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사수파가 있는 한 우리당의 해체는 불가하다. 정, 김 전 의장 등 대통합을 추진하는 분들은 우리당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세력간의 대립이 격화일로로 갈면서 우리당에서는 이달 안에 당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친노파로 분류되는 유기홍 의원은 지난 5일 “대안도 명분도 없이 무조건 당을 해체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어 우선은 당을 지키고 남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식으로 당을 나가 대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지 불분명하지만 굳이 떠나야겠다면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 김 전 의장을 겨냥했다.

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시민 보건복지장관도 최근 우리당 중진의원들과 만나 “우리(친노계)는 당을 지킬 테니 떠날 분들은 떠나라. 비례대표 의원들도 편안하게 보내드리겠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 측근인 이광재 의원은 6일 “가솔을 자꾸 하면 습관이 되고 탈당도 자꾸 하면 이마에 ‘주홍글씨’가 쓰여진다”며 “어려울 때일 수록 결속해 난국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 있는 분들은 제발 말을 아껴달라”고 탈당파의 자중자제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의 대규모 2차 탈당이 예고된 가운데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정치행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어린아들인 5일 서울 서초구 언남초에서 열린 유소년축구대회에서 심판으로 나서 양팀 선수들을 인사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신당’ 당명 사용 못해 선관위, 이미 등록돼 있어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 모임이 당명(黨名) 문제로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7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후 중앙선관위에 정식명칭 ‘중도개혁통합신당’, 약칭 ‘통합신당’으로 정당등록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뒤늦게 ‘통합신당’이란 약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최동일 목사가 대표자로 있는 중도통합신당이 지난 4일 시도지부 및 중앙당 창당을 완료하고 선관위에 정당등록 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신청서에 약칭을 통합신당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약칭을 포함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신당모임은 선관위에 ‘통합신당’이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는냐고 문의했지만 사용불가능 답변을 들었다.

정동영·김근태 동반 탈당 규모 얼마?

열린우리당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이 이달말 탈당을 결행할 경우 이에 동조할 세력이 얼마나 될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두 사람의 탈당은 ‘분당(分黨)’급 동반 탈당을 촉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지만 실제로 동참할 의원들의 규모를 놓고는 관측이 크게 엇갈린다. 양대 계파의 수장이었던 두 사람의 조직장악력이 과거와는 판이한데다 우리당 자체의 통합주의 상황과 당 밖의 ‘환경’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있다.

당 안팎에서는 양대 계파로 분류되는 의원 수를 고려할 때 40명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월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할 때 정동영계는 70명, 김근태계는 50명선이었지만 지금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각각 10~20명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친(親) 정동영 성향의 의원들은 채수찬·정정래 의원 등 지역구 의원이 9~10명이고, 비례대표는

40명선 유력... 최대 60명 관측도 조직 장악력 약해 예상 인원수 밀돌 수도

박영광·박영선·김현미 의원 등 10명 안팎으로 모두 20명 안팎으로 분류된다.

김근태계는 15~16명 수준, 이인영·우원식·최규성 의원 등 지역구 의원 10명 가량과 유승희·홍미영 의원 등 비례대표가 5~6명이다.

이중 ‘자발적 탈당’이 불가능한 비례대표들을 빼면 두 사람이 직접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의원은 2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들의 동시 탈당은 당 전체에 심리적인 충격파를 던지면서 1차 집단탈당 당시 동참하지 못했던 ‘탈당유보층’을 다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충청과 인천, 경기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20명 가가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탈당규모가 40명선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당의 ‘본진’이 움직이는 수준의 ‘60명선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중도성향을 보여온 ‘광장파’ 소속 중진·재선의원들, ‘미레포럼’ 소속 초선의원들, 정대철 상임고문인 이그는 대선주자 연석희의과, 이목희 의원이 주도하는 초선모임 등에서 20여명의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동반탈당 규모에 예상치를 밀돌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지지도가 낮아져 탈당 이후의 ‘대선주자 연석희의’ 구상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유보 또는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가 다.

기업 19% “대선자금 요청 받았거나 받을 것”

“불법 자금 거부하겠다” 절반도 못 미쳐
대한상의 1,300개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대통령 선거에 사용될 정치자금 지원 요청을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자금 제공 요구를 받았을 때 명백히 거부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절반에도 못 미쳐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혼탁선거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천3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17대 대선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권의 대선자금 지원요청과 관련해서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는 기업

이 80.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의 개선된 정치풍토를 감안할 때 적다 고 보기 어려운 19.1%의 기업이 ‘아직은 없지만 장차 있을 것으로 본다’(14.9%)거나 ‘이미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4.2%)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앞으로 정치자금 제공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21.1%로 중소기업의 13.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대선 자금 지원 요청시 대응방침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들어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지만 ‘대응방침을 정하기 어렵다’(40.0%)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선별 지원을 하겠다’(9.0%), ‘불법이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어렵 수 없다’ 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4.5%)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BDA 해결땐 북 2·13 이행 의지 확인”

방북 김혁규의원 밝혀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 2차 방북단이 6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북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일부터 나올 일정으로 평양을 다녀온 방북단은 남북경제협력추진단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경험담지 확대, 에너지 등 경제분야 협력방안

을 협의하는 데 1차적 목표를 뒀지만, 2·13 북핵 6자회담 합의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서 북미관계 개선을 향한 북한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더 큰 성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방북단을 이끈 김혁규 의원은 가장 의미있는 성과에 대해 “BDA(방곡벨 타아시아) 문제가 해결될 때 북한이 2·13 합의 내용을 확실히 이행하겠다

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문제도 공식의제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북측에서 남측의 의지가 높아지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핵문제나 북미관계가 잘 풀릴 경우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결과 아니겠느냐는 조심스런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방북이 자신의 대선행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나 대선전략적 의도로 방북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면학분위기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름이 기회! 개강 6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후 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국비무료모집

과정	교육내용
기업사무자동화인력양성 영세자영업자 교육(07/6/1~3개월)	윈도우XP, 워드,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다양한 기능 습득(시간:9:10-13:00)

*영세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등로 전액 국비교육, 교재무료제공, 수강지급.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자과정(교육기간)	교육내용(교육시간)
주택관리사 주말반(토, 일) 교육기간:5/7~7/1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관리실무, 시설개론(토14:00-20:00, 일 10:00-17:00)
공인중개사(월~토) 교육기간:5/12~6/30	민법, 법령, 세법, 공시법, 부동산개개론, 공법(월~금:19:00-22:30, 토 15:00-18:30)
주택관리사(월~토) 교육기간:6/4~7/31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관리실무, 시설개론(월~금:19:00-22:30, 토:15:00-18:30)

개강 5/14

정보화기초1 윈도우XP, 인터넷, 한글(화/목 19:00-21:00)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월/수/금 19:00-21:00)

기타 사항

- 모집대상: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에 모집
- 기타사항: 수료 후 100%~80(정보화기초과정은 100%)환급
- 접수: 수강신청서, 훈련신청서, 훈련수강신청서 작성 후 훈련기관에 제출 후 수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자격직강

• 전남여고수불선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 예술의거리 입구수 풍양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 문화전당역(구 도청)수진월07, 침당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풍양01, 문동80, 두암82, 518, 1187

=행자부는 2011년까지 공무원 51,223명을 증원 할 계획이다=

7.9 공무원 완전 대비

기술직렬 ... 행정직렬 ... 공안직렬

시험 안내

- 서울 지방직: 7월 8일 시행 1723명
- 전남: 6월 23일 161명
- 전북 지방직: 제2회 9급 행정, 사회복지사: 9월 8일 131명 공채
- *전남지방 7-9급 행정직 후반기 시험 시행 예정
- *후반기 각 시·도별 9급 교육행정직 9월~11월 시행, 합격응이*

개강: 5월 1일 주·야(휴일)반 모집

★정규이론반: 주간 2개월 야간 3개월 완성
★핵심이론+문제풀이반 1주완성반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6월 1일 첫진도 개강

고용보험제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적근로자 수강료환급과정이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100%-8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모집인원: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각 60명씩 선착순 마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옆 2층 영 광주은행 4F)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232-1088

*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김재규 경찰청원 3층 * http://www.hdedu.co.kr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대비반 개강 5월 1일

약대/한의대/수의대 편입대비반

08년 편입시험 대비반(일반편입/학사편입)

★수준높은 맞춤식 강좌: 기초-이론-적용-핵심-심화

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그 동안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www.kjkimyoung.co.kr
김영(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8088